**Really shiny stuff that doesn’t mean anything(아무런 의미 없이 진정으로 빛나는 것)**

　사람은 항상 빛나는 것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영국의 예술가 라이언 갠더는 작품 ‘***Really shiny stuff that doesn’t mean anything***(아무런 의미 없이 진정으로 빛나는 것)’을 통해 본질적인 매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속 구형은 용도를 알 수 있는 수천 개의 작은 자성을 띠는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갠더의 작품은 사람들을 환하게 빛나는 물체로 몰아넣는 뿌리깊은 욕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여기서 물체를 연결하는 자성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결집시키는 힘이 없었다면 덩어리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사고는 다자이후 덴만구의 주변 환경에 녹아 있는 신앙과 신념이라는 개념과 닮아 있습니다.